

### 목어

#### 악수 두는 일본

현재 중국의 공식적인 인구는 12억이지만 실제 인구를 15억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중국은 1976년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래 많은 고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수요일부 부족국에서 쿨자의 초과공급 상태가 되었다. 중국 정부의 계획은 연평균 GDP 7%를 계속 성장시켜 2010년에는 현재 2001년 때의 2배를 달성하고, 2020년에는 일본의 경제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만리장성, 대운하와 같은 대공사를 경험하고 있다. 현재도 그것들에 버금가는 대공사가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이공계 대학은 양적으로는 상승일로에 있으며 질적으로도 清华, 北京 대학 등 세계 일류급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IMF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통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 반도체, 제철 등 중요한 경제분야에는 세계 제1위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으며, 특히 IT분야에서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불과 수년 전까지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다. 하지만 지난 일어난 10년 간의 경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호송선단식 관주도와 연공서열, 종신고용에 의한 경제시스템이 더 이상 정비화, 국제화의 진행 속에서 지탱을 못한 것이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경기부양정책은 정부 부채가 GDP의 180%에 달해도 효과가 없어서 0급리를 실시할 정도가 되어 있다. 일본 경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가까운 장래에 호전될 전망은 없다.

그간 가까이 여겨온 한국과 중국의 약진에 일본은 초조해지고 국민은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암울한 상황을 왜곡된 교과서 등으로 국민적 자긍심을 부추기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선이 오히려 일본을 망치고 동북아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성을 되찾아 함께 이 지역의 공생공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 조계종 - 통도사 갈등 '해빙 국면'

### 정대스님 통도사 주지 임명장 수여

#### 종단상대 소송취하 표명 사면 복권 추진 밝은 전망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종단합작위원회에서 추진해온 사면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그동안 사면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정화회의의 소송취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98년 정화회의 건과 관련해 방장 직위가 해제돼 주지추천권이 없는 월하스님이 지명한 현문스님에게 주지(직무대행) 임명장을 수여해 통도사와의 화합의 길을 열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월하스님이 총무원 인사와 만나 종단을 상대로 제소한 소송취하, 징계승려사면요청 성명서 발표 등 종단화합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존중한 데 따른 것이어서 월하스님도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추진중인 사면복권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임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은 이와 관련 "어른(월하)스님께서 나오신데 불이익당할 사람들을 종단차원에서 풀어줬으면 한다"고 밝히셨다"며 "나중에 성명서를 발표해서라도 어른스님이 결

단내린 부분에 대한 의견표명이 있으실 것이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정화개혁회의가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취하 등 98년 종단분규로 인해 파생된 종단과의 갈등관계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화합종단 구현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혀 화합전망을 한층 밝게 하고 있다.

이 같은 통도사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은 총무원 집행부가 종현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화회의원들을 설득할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면에 대해 미온적인 한 정화



◇통도사 현문스님(왼쪽)은 12일 총무원에서 월하스님의 뜻을 존중, '신임주지로 현문스님을 임명 한다'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회의원은 "3월 총회에서 '종현 개정, 초과일 이전 사면' 등의 얘기가 나왔으나 정화회의가 정화회의원 자격상실확인 및 총무원장 부존재 소송을 항소하여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며 "사면에 대해 정

회원들의 분위기가 싸늘한 것은 사실이지만 총무원이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인다면 올해 내 종분개정과 사면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kw@buddhapia.com

### "대화 통해 화합 모색"

#### 통도사 주지직대 현문스님

"대중이 화합하고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통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으로부터 신임 통도사 주지(직무대행)임명장을 받은 현문스님은 "지난달 초 주지선출을 위한 임회의 유희 등 휴유증으로 통도사가 한 달간 주지 공백상태에 빠졌던 등 갖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양측(현문-원하)스님이 어른스님(월하)스님의 뜻을 존중하여 원만한 화합을 이뤄냈다"



며 "일방적자인 만큼 문제가 발생되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통도사가 정화개혁회의를 이끌어 종단과 대립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풀도록 노력하겠다"며 "양측이 12일 합의점을 찾은 만큼 앞으로는 오직 산중이 편안해지는 원용살림을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현문스님은 월하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해 7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후 표창사 주지, 조계종 중앙선관위원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 종교인 환경회의 첫 워크숍 "자연 - 사람 더불어 살자"

### 종교·환경단체 150명 참석

"종교인들이 자기 자신부터 정화해 나갈 때 자연과 사회가 정화해진다"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고 신도들을 각성시켜 나가자"는 감동과 대립의 상처를 통합과 조화의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종교계가 나섰다. 지난 5월 22일 창립한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김영락 이선종 최용득)는 9-11일 경기도의 정부 천주교 한마음 수련원에서 '생명의 시대, 깨달음과 영성을 위하여'란 주제로 제1회 '생태사회를 위한 종교인 대화마당'을 펼쳤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교단 환경단체 회원 150명이 참가한 이번 대화마당은 생명에 대한 깨달음과 영성을 지향하는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못 생명을 죽임으로 내모는 인간의 이기심과 오만에 대한

참화를 통해 사람과 자연을 모두 살리는 생명운동에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대화마당 첫 번째 날에는 '21세기 화두 깨달음 영성이란 무엇인가'란 화두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신태 교무는 발제문을 통해 "모든 편견을 버리고 평상심과 여유함으로 자연을 어머니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생태적인 공존과 상생의 시작"이라면서 "삶과 만남 속에서의 깨달음이 생태적 깨달음"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현주 목사는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 자리를 포기하고 겸손되어 땅에 내려와 자연의 일부로서 주변의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곧 우리는 편이와 안락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인간스럽음을 약탈해 가는 저 눈먼 도시화, 공업화로 부터 탈출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일스님(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은 "우주와 나, 물질과 정신을 둘로 보지 않는 물심불이(物心不二)의 자세로 생명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인 지구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환경운동은 결국 모든 종교의 근본적 가르침과 일치하며 종교와 환경운동과도 연계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혼돈의 시대를 조화의 사회로 만들어가는 종교가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화마당은 그간 가장 생태적인 삶을 살면서도 환경운동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종교인들이 구체적으로 종교적 깨달음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는 점에서 종교환경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불교 문화재 지키기 결국 문화유산 보호"

### '우리문화재 지키기' 발대 이루영 경찰청장



문화재 도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찰청은 12일 오후 2시 경찰청 대강당에서 '우리문화재 지키기 발대식'을 갖고 문화재 지키기에 경찰과 정부, 불교계가 매진 할 것을 다짐했다. '우리문화재 지키기'의 총사령관인 이루영(李茂永) 경찰청장으로부터 발대식의 의의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들었다.

▲우리문화재 지키기 발대식이 갖는 의의.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의 창달 없이는 국가의 부강도,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찰이 문화재 보존과 도난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던 차에 불교계에서 담당수사관제도 창설을 제의해왔기에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민·관 그리고 경찰이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 서로 협력을 약속하게 된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발대식 이후 문화재 전담 수사관 등 경찰의 활동은 어떻게 전개될까?

"현재 전담수사관은 전국 경찰관서에서 차출된 정예수사 요원 2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담수사관들로 하여금 관내 문화재 현황 및 골품출상, 문화재 범죄경력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초빙한 전담수사관들에 대한 집중 교육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집중단속이나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전국적 공조수사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대식을 계기로 경찰과 불교계가 문화재 지키기에 공동 노력을 더욱 배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경찰은 지역의 사찰과 유기적이고 장기적인 협조 체계를 일러 문화재의 손실과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경찰청이 문화재 자문위원 11명을 위촉한 것으로 압니다. 더불어 문화재전담 수사관의 전문교육 강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지요.

"문화재 각 분야별로 권위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문화재 전담 수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전문교육에 대해 협의 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지방청 사정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불교계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도난사건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의 방법활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래 불교계에서 문화재 소장 사찰 등에 방범기기 시스템을 도입 설치하는 등 자위방범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불교계의 경찰이 뜻을 모아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임연태 뉴미디어부장

## 한국불교태고종 전 종도에게 드리는 말씀

한국불교태고종은 종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원용회통 정신을 면면히 계승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역대 선조사 스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종단의 자주적 전통과 법맥을 계승하여왔다. 그러나 제 79회 중앙종회 이후 작금의 현실까지 야기된 종단의 사태는 전 종도들을 실망시키고 내분으로 인하여 종단이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파사현정 부중수교의 일념으로 현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동안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바로 잡으려 지난 7월 10일 종단 내의 대덕 큰스님들과 주요간부 100여인이 동참한 가운데 "한국불교태고종 종단바로세우기연합"(이하 종단바로세우기연합)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대화장에 서철화 스님, 삼일집행위원장 김운경 스님을 추대하고 다음과 같은 4개항을 결의하였다.

1. 우리는 상구보리 하회중생의 승가 본연의 가풍을 지향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종단건립에 매진한다.
2. 우리는 작금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킨 자들을 규탄하며 현 총무원장은 조속히 종법에 의거하여 책임자들을 엄중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종단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고 바로 설 때까지 현 집행부의 모든 지시사항을 거부한다.
4. 우리의 요구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여 종단이 바로 설 때까지 결사 항전할 것을 천명한다.

종단바로세우기연합은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7월 11일 최혜초 총무원장을 방문 결의사항을 전달하고 종단의 현안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를 촉구하였으나, 최혜초 총무원장은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 자들과 배후 세력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자신은 합이 없고, 또 총무원장을 만들어준 그들을 배신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제 우리는 최혜초 총무원장과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종도들에게 현 사태의 진실을 알리고 종단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최근 현 집행부에서는 종단에 떠도는 의혹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공문을 종단 간부들에게 보냈는데, 이 문제 또한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현 집행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전국승려대회이후 구성되는 참신하고 공정한 집행부가 주도하여 모든 관계자를 소환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이 낱낱이 밝혀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애증심과 결의를 연명으로 종도들에게 고하며 전 종도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 증 명 : 덕암 종정 예하
- 고 문 : 승정원 승정 예하, 홍인곡, 김연운
- 대회장 : 서철화 · 부대회장 : 최월해
- 상임집행위원장 : 김운경 · 부위원장 : 김수암, 이지성
- 입법위원회 위원장 : 최법산 · 부위원장 : 성수중
- 사정위원회 위원장 : 김백만 · 부위원장 : 이백우, 김지각
- 자문위원 : 김학성, 김운암, 김지암, 권태수, 박만화, 송종연, 김산용, 이정은, 이벽파, 이석우, 임자광, 류우담, 정지려, 주선용, 최정암, 최월봉
- 지도위원 : 김금명, 고동우, 권금용, 석노필, 박일운, 박정담, 박길수, 박동파, 이해암, 최만일, 최혜운, 김법선

정도사 혜성, 판암사 혜공, 백련사 정암, 인곡, 운암, 월해, 운경, 설산, 도명, 무불, 도원, 종원, 용문사 산옹, 태평사 금명, 송암사 혜운, 봉원사 법산, 성담, 일운, 운천사 대권, 홍곡사 월봉, 연화사 분자, 백우정사 도성, 도현, 선암사 현오, 원각사 법해, 선암사 법정, 청련사 백우, 해암, 혜경, 도암, 심곡, 벽산, 승가사 지성, 불국사 법선, 법성, 보리정사 일운, 선광사 수열, 정방사 해일, 청강사 수행, 금봉사 수암, 백룡사 수중, 석봉암 광진, 원각사 법달, 극락사 현경, 향림사 우담, 천불사 무애, 미타사 만화, 법성사 법성, 상불암 무위, 불화연구소 원욱, 청봉사 청봉, 성불사 도암, 경불사 우준, 토굴산방 정우, 보은사 혜담, 기원정사 대원, 보경사 형우, 무각사 호산, 천관정사, 도봉사 고봉, 원광사 화경, 보은사 장진, 백천사 정일, 동방대동문 보적, 혜경사 지현, 수왕사 만월, 수도사 일호, 송암사 백송, 대길사 대길행, 은적사 진공, 관음사 청호, 관음사 동표, 부흥사 법선, 부흥사 법해, 향천사 혜연심, 용학사 완월, 용천사 원산, 성은사 성오, 성주암 재홍, 원각사 원명, 미륵사 청안, 사바사 일곡, 선행암 정안, 만성사 김백만, 기원정사 설운, 정불사 서운, 판암사 법인, 선현정사 학림, 경수사 호연, 천원사 현우, 용운암 계룡 (무순)

불기 2545년 7월 12일

## 한국불교태고종 종단바로세우기 위한 전국승려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서철화